

KERI Brief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jenna.song@keri.org)

MICE산업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의 핵심 과제로, 대한민국은 2014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4위를 기록했으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문회의시설, 숙박, 교통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 수요 및 부가가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운송, 음식 숙박, 레저스포츠, 관광, 유통 등과의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복합리조트 사업은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민자 유치 실패 및 기관 간 이해 갈등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어 왔

다. 보고서는 부담금 감면의 실효성 향상, 조세 감면 등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혜택을 늘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전략 지역을 선지정하여 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개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서울의 복합리조트 개발이 시급하므로 서울역 북부와 COEX-잠실 지구를 정부에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우선 지정, 민간 참여를 장려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GTX 개통에 맞추어 KINTEX-서울역-COEX를 통합브랜드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1. 검토배경

□ 정부는 MICE¹⁾산업을 2009년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왔으며,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

- MICE 1회 개최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일반 관광객의 약 2배 많아, 소득 및 고용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국인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2,621달러²⁾, 일반 관광객의 1인 지출 경비는 1,648달러³⁾

○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인원이 52명으로 반도체(36명), 조선(32명), 섬유(32명), 자동차(23명) 등 주요 수출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음⁴⁾

□ 전 세계 MICE산업이 세계화에 따라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 있어서는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미흡

-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14년 12,212건으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고⁵⁾, MICE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 1,200억 달러에서 2017년 1조 5,000억 달러로 성장 예상⁶⁾

- 우리나라 MICE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2012년 41조 원에 이르고⁷⁾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06년 15위에서 2014년 4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MICE산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음

○ 이러한 빠른 성장은 정부·공공 부문의 국제행사 증가로 인한 것이며⁸⁾ 2014년 MICE 참가자 약 3천 9백만 명 중 96%가 내국인⁹⁾으로 순수한 의미의 국제회의는 많지 않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MICE산업 규모는 0.45%로, MICE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1.05%), 싱가포르(1.91%), 호주(2.47%), 영국(1.67%)에 비해 낮은 수준¹⁰⁾

- 1)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Exposition)의 약어로서 국제회의 및 국내회의, 기업의 포상 관광, 전시를 수반한 국제회의, 산업전시(메가이벤트, 박람회 등)를 포괄하는 개념
- 2)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조사, 2013
- 3) 문화체육관광부,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4
- 4)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MICE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2014.3.10
- 5) 국제협회연합(UIA), (한국관광공사, 2014년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2015에서 재인용)
- 6) 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GBTA), www.gbta.org
- 7) 한국관광공사, 2012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2013
- 8) 신용서, 컨벤션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9) 한국관광공사, 2014년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2015
- 10) 문화체육관광부 (김종호,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MICE 산업의 육성 방안 연구, 동북아관광학회, 2011에서 재인용)

〈표 1〉 2014년 국제회의 개최 실적

(단위: 건)

순위	국가별	도시별
1	미국(858)	싱가포르(850)
2	벨기에(851)	브뤼셀(787)
3	싱가포르(850)	비엔나(396)
4	한국(636)	파리(325)
5	일본(624)	서울(249)

자료: 국제협회연합(UIA) (한국관광공사, 2014년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2015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MICE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가격을 제외하고 시설, 교통, 홍보 등 전 부문에서 낮은 편

- 우리나라의 MICE 종합경쟁력 지수는 30.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비교 대상 21개국 중 18위로 나타남¹¹⁾

○ 전시·회의시설 규모 측면에서 총 전시면적 28.0만 m²(15위)와 최대 전시면적 10.4만 m²(11위), 숙박시설 규모 측면에서 관광객 100명당 객실 수 0.6개로 19위, 항공 인프라 경쟁력 15위

□ 본 보고서에서는 MICE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서 인프라 구축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MICE산업은 전방산업인 관광산업과 후방산업인 전시장, 숙박, 운송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MICE 인프라 부족으로 시장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가 어렵고 향후 경쟁력 약화 가능성 있음

11)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MICE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2014.3.10

2. 국내 MICE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 행사 유치에 위한 기본적 인프라인 전문회의시설이 해외 주요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MICE 산업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

- 2016년 현재 전국에 국제회의도시 11개가 지정되어 있고 컨벤션센터 16개가 운영 중이나 세계적 규모의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음

- 국내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한 경기 고양 KINTEX의 전시장 면적이 108,483㎡로 세계 42위에 머무르는 등, 대형 컨벤션센터 부재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제한이 있음
-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CeBIT(IT)이 개최되는 독일 하노버 메세가 463,275㎡로 세계 최대 규모이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MWC(IT) 등 유명 전시회가 개최되는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세계 15위권 전시장들은 200,000㎡ 이상의 부지를 보유

- 최근 중국은 광저우(340,000㎡), 충칭(204,000㎡), 상하이(200,000㎡) 등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개장하며 MICE산업을 적극 육성 중으로, 아시아권으로 향하는 MICE 수요를 뺏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5위 도시인 서울의 컨벤션센터 면적(71,964㎡)은 세계 20위권으로 5위권 도시 평균(214,782㎡)의 30%에 불과¹²⁾

- COEX는 특급호텔 및 각종 기반시설을 완비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회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로는 세계 190위

12) 서울특별시, 서울MICE 육성 마스터플랜, 2013.10.25

〈표 2〉 2016년 국내 컨벤션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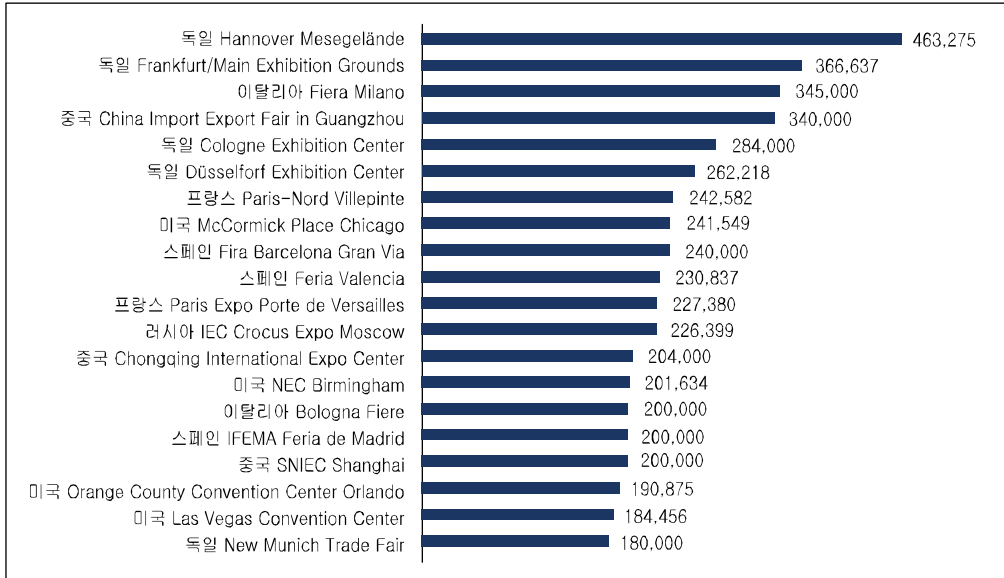
(단위: ㎡)

지역	컨벤션센터	회의장 면적	전시장 면적	개관일
서울	COEX	11,123	36,007	1988년
	SETEC	1,093	7,948	1999년
	aT Center	657	7,422	2002년
	DDP	7,714		2014년
부산	BEXCO	8,351	46,380	2001년
인천	송도컨벤시아	4,020	8,416	2008년
고양	KINTEX	13,303	108,483	2005년
대전	DCC	4,064	2,520	2008년
	대전 무역전시관	-	4,200	1995년
광주	KDJ Center	4,313	12,027	2005년
제주	ICC Jeju	9,133	2,395	2003년
창원	CECO	2,784	7,827	2005년
대구	EXCO	7,436	22,159	2001년
구미	GUMICO	953	3,402	2010년
군산	GSCO	1,825	3,697	2014년
경주	HICO	3,421	6,273	2014년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16), www.akei.or.kr

〈그림 1〉 2015년 전 세계 컨벤션센터 면적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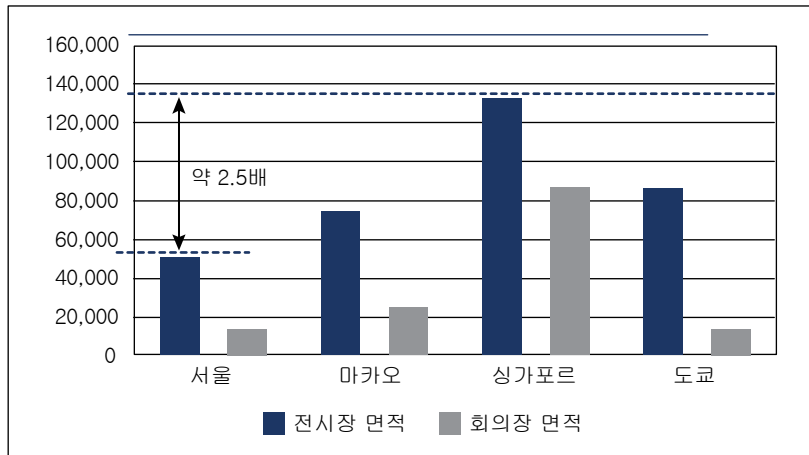
(단위: m²)



자료: Statista(2016), www.statista.com

〈그림 2〉 아시아 주요도시 컨벤션센터 현황

(단위: m²)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MICE 육성 마스터플랜, 2013.10.25

- SETEC과 aT Center는 전문국제회의 시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변 기반시설이 없음
- 서울 시내 세 곳의 가동률이 70%로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대형 컨벤션센터가 없어 대규모의 행사 유치는 포기하거나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 서울의 컨벤션센터 공급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나 신규 건립은 지연되고 있음

- 서울, 부산, 제주 3개 지역에서 국제회의 개최의 70%를 소화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컨벤션센터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확충이 시급한 상황
- 반면, 기타 지역은 대형 행사 개최 및 외국인 참가자 모집이 어려워 전시장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 서울시에 2014년 3월 DDP(동대문 디자인센터) 개관 이후, 2015년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2020년 COEX-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수립부터 늦어지고 있음

〈표 3〉 국내 컨벤션센터 수급 전망

(단위: m²)

연도	과부족 (공급면적 - 필요면적)						
	전국	서울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2010	16,899	322	12,157	1,246	-298	2,134	56
2011	70,685	-3,427	62,977	844	9,927	-231	-606
2012	85,886	-7,612	67,259	395	8,950	17,130	-1,346
2013	72,093	-11,986	62,955	-74	7,929	14,371	-2,118
2014	61,966	-16,556	58,458	-564	6,863	11,488	1,361
2015	46,904	-21,332	53,759	-1,076	5,748	8,476	517
2016	43,756	-13,782	48,848	-1,611	4,583	5,328	-364
2017	27,308	-18,947	43,716	-2,170	3,366	2,038	-1,285
2018	10,120	-24,398	38,354	-2,755	2,094	-1,399	-2,248
2019	-7,841	-30,093	32,750	-3,366	765	-4,911	-3,253
2020	-26,611	-36,045	26,893	-4,004	-624	-8,745	-4,305

자료: 한국전시산업연구원, 2010(김종호,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MICE 산업의 육성 방안 연구, 2011에서 재인용)

<p>□ 숙박 인프라는 호텔 및 대체 숙박시설¹³⁾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객실 수는 경쟁 국가 대비 여전히 부족</p> <p>- 외국인 MICE 관광객은 호텔 이용자가 85%에 육박하고 특히 특급호텔 숙박 비중이 높음¹⁴⁾</p> <p>○ 그러나,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특급호텔 신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객실 가동률과 수익성이 저하되어 업계의 특급호텔 추가 건설 계획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p> <p>- 인구 100명당 호텔 객실 수는 한국이 0.2개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97위에 불과하였으며, 국제회의 개최 상위 5개국과 비교하여 가장 열위</p> <p>□ 경쟁 국가에 비해 항공 인프라 경쟁력이 낮은 편이고 육상 교통 인프라의 편의성 역시 저조함</p>	<p>- 항공 인프라 경쟁력은 전 세계 31위로, 항공편의 국제선 및 운항 항공사 수가 글로벌 거점 도시에 비해 적고 항공 밀집도가 낮기 때문</p> <p>- 공항에서 서울 시내 주요 전시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각 지방 도시로의 연결성도 미흡하여 특히 외국인 MICE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이 부족</p> <p>○ 지방 도시의 접근성 문제는 서울에 집중된 MICE 수요와 경제효과의 지역 분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p>
	<p>13) 숙박시설은 크게 관광진흥법상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숙박업(모텔, 여관 등)으로 구분하며, 대체 숙박시설은 게스트하우스, 민박,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을 포함</p> <p>14)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 조사, 2013</p>

〈표 4〉 국제회의의 개최 상위 5개국 숙박 및 교통 인프라 경쟁력 비교

(단위: 숙박: 인구 100명당 호텔객실 수, 교통: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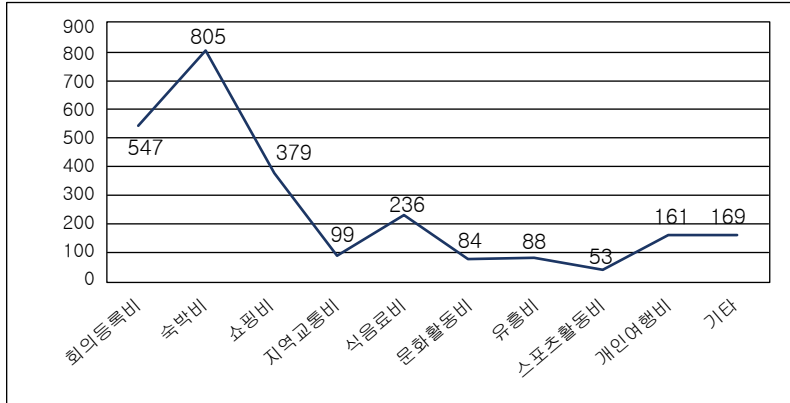
항목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		한국		일본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숙박	1.6	17	0.7	49	1.0	32	0.2	97	1.1	27	
교통	항공	6.0	2	3.8	38	5.3	6	4.1	31	4.5	19
	육상·해상	4.7	31	6.0	6	6.4	2	5.1	21	5.3	17

주: 총 141개국 대상

자료: World Economic Forum(WEF),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그림 3〉 2013년 항목별 외국인 참가자 1인당 평균 소비액

(단위:US\$)



주: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조사, 2013

□ 컨벤션센터 주변의 관광 인프라 및 사전·사후 관광 상품 개발이 미흡하여 행사 이외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의 지출이 주로 회의 등록비와 숙박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지출은 크지 않음

○ COEX를 제외하면 주변에 대규모 쇼핑, 공연, 레저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가 없음

- 세계적으로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들이 행사 일정 전후에 관광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타 지역과 연계한 관광·휴양 상품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¹⁵⁾

○ 2013년 Meeting 및 Convention 참가자의 참가 목적 체류일은 평균 4.21일, 참가 목적 외 체류일은 1.36일에 불과, 타 지역으로의 관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Incentive 관광객들은 방문지로 도심/쇼핑지역(71.3%)과 역사/문화자원(61.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지역 유적지를 연계한 포상관광 상품 다양화가 필요

15) 한국관광공사, 2013 MICE 참가자조사, 2013

3. MICE 인프라의 융복합화 필요성과 개선과제

□ **국내 MICE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와 주변 관광 인프라의 융·복합화를 통한 질적 개선이 필요**

- 컨벤션센터 및 호텔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전문회의시설, 교통, 숙박, 쇼핑, 문화, 음식, 레저, 의료 등 MICE 참가자의 다양한 니즈를 한 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리조트(Integrated-resort)는 전무한 실정
- 카지노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부상한 라스베가스를 비롯, 싱가포르, 마카오 등 아시아에서도 최근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MICE 행사 전후의 소비와 관광 활동을 진작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음
 - 라스베가스 대표 MICE 행사인 세계가전박람회(CES)에만 매년 17만 명이 방문, 직접적 경제효과 2,300억 원, 간접효과 1조 원 이상을 창출
 - 해외 복합리조트에서는 민간에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데, 비수기 동안 MICE 관광객을 유치하여 호텔 객실 가동률을 높이고 카지노, 공연, 쇼핑 등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 국내 복합리조트 1개 건설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효과 7.6조 원, 소득효과 1.1조 원, 부가가치 효과 3.5조 원, 고용효과 5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¹⁶⁾

□ **신규 개발 중인 컨벤션센터의 경우 계획부터 복합 개발방식(Mixed Use Development)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민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

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 지연¹⁷⁾

- COEX-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서울역 북부, 경기 고양 한류 MICE복합단지, 부산 복합환승센터, 대전 엑스포 컨벤션, 전주 복합시설,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등이 논의 중
- 서울역 북부 사업에서는 한화역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 계획을 철회, 대전 엑스포 컨벤션 복합사업과 전주 복합시설지구 조성사업 역시 진행 중단 상태
- 인천 영종도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던 인도네시아 리포그룹이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카지노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신규 투자자 모집 중

16) 송학준, 2012.1 (박내회, “메가 복합리조트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효과”, 복합리조트 모델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발전 국제세미나 자료,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2013에서 재인용)

17) 김희수, 국제회의복합지구 시행 기준 및 절차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7

〈표 5〉 주요 MICE 도시 복합리조트 현황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리조트월드 센토사 (Resort World Sentosa)	마리나베이샌즈 (Marina Bay Sands)
개장	1990년대	2010	2010
면적	총 99만㎡	49만㎡	55만㎡
투자금	호텔별 8억 달러~30억 달러 이상	49억 달러	58억 달러
개발회사	Las Vegas Sands 외	Genting Singapore	Las Vegas Sands
시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16만㎡) 샌즈엑스포 컨벤션센터(11만㎡)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20만㎡) 카지노, 호텔, 공연장, 쇼핑물 등	카지노, 컨벤션센터, 해양생태공원, 유니버설 스튜디오, 박물관, 쇼핑센터, 호텔 6개	컨벤션센터(12만㎡), 호텔, 카지노, 콘서트홀, 쇼핑몰, 예술과학박물관, 경기장, 이벤트 광장
연간 방문객	도시 전체 방문객 4천만 명 Meeting and convention 방문객 약 5백만 명(전체의 12.4%)	약 2천만 명	약 1천 5백만 명
생산	Meeting and convention으로 인한 직접임금 13억 달러, 간접임금 21억 달러, 총생산 67억 달러	2011년 복합리조트 매출액 55억 달러 2012년 GDP 2,750억 달러 중 복합리조트 기여도 1.5~2%	
고용	Meeting and convention으로 인한 직접고용 33,100명, 간접고용 56,800명, 리조트 업계 전체 고용 27만 명	직간접 고용 6만 명	

주: 국회사립관광산업연구포럼, 복합리조트 모델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발전 국제세미나 자료, 2013 및 류광훈, 해외사례로 보는 복합리조트 개발의 과제, 한국관광정책, 2013 참고

□ 2015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회의복합지구¹⁸⁾ 지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¹⁹⁾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

- 을 초에야 3개 광역지자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신청 의사를 밝히고 타당성 조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는 등 제도시행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혜택이 기존 지구 단위계획에서 부여하는 혜택과 차별성이 없고 실제 감면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세에 대한 감면이 누락되어 투자 유인이 어렵기 때문

○ 부담금 감면에 대한 근거만 포함하고 구체적인 감면 범위와 요율에 대해서는 소관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기존에 컨벤션센터 및 관광호텔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18)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19)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 도입은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및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2013년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시작으로 제3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4~2018),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거쳐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2015년 3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9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표 6〉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혜택

혜택	시행 방법	내용
부담금 감면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시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용적률 완화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범위 내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재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육성재원을 지원 대상: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사업,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원 사업 등

자료: 이병철·도현래,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사례연구, 한국무역전시학회, 2015 및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참조

〈표 7〉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절차 및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구지정안 작성→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요청→문체부 장관 협의→전문가 심사→시·도시사가 지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적으로 전문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갖출 것 외국인 참가자수 최소 5천 명 이상 컨벤션센터 중심에서 도보 10분 이내 400㎡ 지구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하기 때문에²⁰⁾ 실질적 감면 효과가 없어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 절차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조성계획 마련부터 시작되고 희망하는 지자체는 모두 신청 가능함에 따라, 지구 지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특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

- 지정 요건에 따르면 기존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 개발을 장려하는 효과는 없음

□ 민자 유치 활성화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혜택을 늘리고 지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의 실효성 향상, 조세 감면 등 민간 투자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

○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몰 등은 도심에 토지 및 건물 소유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부 금액이 크고 수익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세금 감면이 필요

○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컨벤션센터에 부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혜택을 민간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국제회의집적시설에도 부여할 필요

20) 조세감면에 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에서 조세특례의 남용금지와 조세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을 위하여 동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관광호텔은 부속토지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조업에 비해 높아 부담이 크고 기존에 부여하던 감면 혜택²¹⁾이 모두 종료된 상황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호텔 건설 시 보유세 및 부담금 감면을 고려해야 함

- 주요 MICE 선진국은 민간의 MICE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

- 미국, 독일: 재산세와 법인세 등 감면
- 싱가포르: 시설관리 비용의 30% 이상 재정 지원, 1997년 개관한 Suntec City에 최초 이익 발생한 년도부터 5년간 법인세(17%) 면제, 복합리조트 두 곳의 카지노 라이선스 30년 및 독점운영권 10년간 인정, 카지노 세율 20% 미만 부과
- 홍콩: 법인세(16.5%)와 소득세(15%) 감면, 호텔·숙박업에 대한 세금 폐지, 주류 판매에 대한 세금 면제
- 마카오: 카지노 독점권을 해제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 외국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이 12%에 불과

- 집중 육성이 시급한 지역의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먼저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함

□ **서울시의 전략 지역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 지정하여 기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시급**

- 서울은 타 지역 대비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고 세계적인 MICE 도시로서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는 성장이 정체를 우려

- 서울은 단기간에 성공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MICE 수요 증가를 지방 도시로의 연계 방문

으로 유도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 가능²²⁾

-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도심 MICE 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기관 간 이해 갈등으로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한 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역은 서울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공항 터미널 위치, 인천공항 및 전국 각지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을 갖추어 외국인 참가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 효과를 지방으로 확산 가능
- 2017년 고가공원이 완성되면 서울역, 서소문 역사공원, 컨벤션센터, 호텔, 남대문 시장, 명동, 남산까지를 잇는 관광 인프라 확충
-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등 선진 MICE 도시의 경우,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도심에서의 회의 참석, 쇼핑, 관광부터 지방 관광까지 용이하도록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민간 투자자는 컨벤션센터 및 특급호텔 운영에 대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 지정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함

- COEX-잠실 지구 역시 정부기관 간 의견 차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으로, 중앙정부에서 이해갈등을 중재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함

- COEX를 기반으로 하여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MICE 단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큼
- 국내 최대 규모의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MICE 산업 발전의 정체와 투자 기업의 피해를 야기

21)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0.8%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투숙 호텔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50% 및 환경개선부담금 25% 감면 등
 22) 김철원, MICE 산업 활성화 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 5월 5만 명이 참가하는 국제 로터리클럽 회의는 COEX에서 수용이 불가하여 회의는 일산 KINTEX에서 하고 숙박과 관광은 서울에서 하는 등²³⁾, 서울시 내 대형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향후 대규모 MICE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p> <p>□ 일산-서울역-삼성동을 잇는 K-MICE 벨트(가칭)를 브랜드화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p> <p>- 국토교통부에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따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개통 계획을 발표한 상태로, 일산 KINTEX-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삼성동 COEX를 잇는 철도가 2025년 완공되면 일산에서 삼성까지 약 22분에 도달 가능해짐</p>	<p>- 각 컨벤션센터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이 필요하며,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K-MICE 벨트 상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p>○ 2015년 11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대형 국제 MICE 행사를 공동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²⁴⁾, 단순한 협력을 넘어 단일 브랜드로서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p> <p>○ 프랑스 파리는 VIParis(Venue in Paris)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파리 시내의 컨벤션센터와 관련 시설들이 MICE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p>
	<p>23) 서울신문, 서울시 MICE산업 육성책 발표 대규모 행사 인프라 부족 어떻게?, 2016.2.24</p> <p>24) 한국경제신문, 서울·경기·인천 'MICE 도원결의'...수도권 공동유치 힘 모은다, 2015.11.24</p>

〈표 8〉 서울시 MICE 복합리조트 개발 진행상황 정리

	서울역 북부역세권	COEX-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요	서울역 역사 55,535㎡ 부지에 컨벤션센터, 오피스빌딩, 특급호텔, 상업문화시설 등 국제교류단지 조성	COEX, 옛 한전부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948,000㎡ 부지에 150,000㎡ 규모의 국내 최대 전문회의시설, 숙박, 쇼핑, 스포츠, 한류 공연 시설 유치
진행상황	<p>2008 • 부지를 소유한 KORAIL에서 2013년 완공 목표로 북부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p> <p>• 서울시-KORAIL-문화체육관광부 MOU 체결</p> <p>2015 •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과 컨벤션센터 건립 위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수립</p> <p>• 고가 공원화에 대한 서울시와 KORAIL간 의견 상충으로 개발 계획안 수립 지연</p> <p>•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한화역사가 투자계획 철회하자 KORAIL은 서울시와의 협의거부</p> <p>• 서울시-KORAIL 공동 TF 철수</p> <p>2016 • 서울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컨벤션센터 면적을 1/3로 줄이고 상업시설 비중을 늘리기로 계획 변경했으나 KORAIL 측 대응 없음</p>	<p>2007 • 한호건설 민간제안사업 검토 결과 경제성 ~2011 미흡으로 미추진</p> <p>2013 • 서울시 강남권 MICE 복합단지 계획 수립</p> <p>2015 • 현대차그룹 옛 한전부지에 컨벤션센터,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등 GBC 조성 계획 수립</p> <p>• 서울시 공공기여금(1.7조 원) 일부를 잠실 종합운동장 MICE시설 개발에 투자하기로 발표</p> <p>•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를 소유한 기재부-서울시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충돌</p> <p>• 강남구에서 기여금의 강남구 내 사용을 주장하며 서울시 계획의 무효화 소송 제기</p> <p>2016 •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이 50,000㎡ 컨벤션시설 포함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협상 마무리</p>
쟁점	<p>• 사업주체인 KORAIL이 컨벤션센터와 상업시설 면적, 고가공원 설립으로 인한 시공 상 어려움과 교통문제 등 사업성 부족 때문에 민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시 계획에 반대</p>	<p>• 기재부와 서울시간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은 좁혔으나 구체적 협의 지연</p> <p>• 공공기여금 사용처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이견</p>
향후계획	미정	2023년 완공 목표

주: 언론 종합 및 내부 자료

4. 요약 및 결론

□ 국내 MICE산업은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시점이며, 산업간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 가능

- MICE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인프라가 수요를 발생시키는 장치산업으로, 우리나라 전문회의시설, 숙박, 교통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 추가 수요 발생에 한계가 있음
- 양적 성장만으로는 부가가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운송업, 음식숙박업, 레저스포츠업, 관광산업, 유통업 등과의 융·복합화를 추진해야 함
- 컨벤션센터, 숙박, 관광, 교통 인프라가 집적되어있는 대규모 복합지구를 조성함으로써 경제 파급효과 확대가 가능

□ MICE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혜택을 늘리고 중앙정부에서 전략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야함

- 현재까지 논의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 실패 및 지자체·기관 간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지연되어 왔으며, MICE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계속 미뤄진다면 우리나라의 MICE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민간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혜택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지자체별로 지구 신청을 남발하다보면 자원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략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 지정하여 개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MICE산업의 지역별 차등 육성을 꺼리는 상황이나,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타 지역은 차별화하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것이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공급 확대가 시급한 서울의 전략 지역을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우선 지정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권역 MICE 시설의 공동 브랜드화가 필요

- 국제적 MICE 도시로서 단기간에 수요 및 부가가치 확대가 가능한 서울시의 개발이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지방 도시들의 MICE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도 서울의 경쟁력을 활용해 MICE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COEX-잠실 지구는 수년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나라가 MICE 강국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 정부에서 직접 기관 간 갈등을 중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MICE산업 성장의 관건임

□ MICE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중요함

- 2009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된 이후 컨벤션 시설의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수의 노력이 있었으나 각종 규제와 이해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복합리조트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MICE 강국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 오랜 협상 끝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기관 간 이해 갈등을 극복하여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6년 6월 8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